

우리 모임예선

부산MBC불교연구회 창립

부산MBC불교연구회(회장 주홍식 심의국장)는 16일 오전 법어사에서 안병을 박정용 부회장, 김종환 총무 등 회원 68명과 가족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병행했다.

법어사 주지 성오스님의 법문과 이윤구 부산경남불교인문협회의회장(불교방송 총괄국장)의 축사, 법어사 합창단의 축하 등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회원들은 지역사회 불교홍포에 앞장설 것을 서원했다.

지난 10월 9일 발기인모임을 가진데 이어 한달만에 창립법회를 가진 본회는 서울 부산에 이은 세번째 MBC불교연구회이다.

성남산악회 하루차집

성남불교산악회(회장 임선교)는 15일 성남시 단대동 하나다방에서 제3회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차집을 열었다. 이날 모인 기금과 5백여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은 12월 13일 20명의 중·고등학생에게 각각 20만원씩 전달된다. 한편 본회는 12월 5일 오후 2시 시민회관에서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을 초청한 가운데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 대법회를 병행, 장기 기증 및 후원자도 모집한다. (0342)46-3871

금강경독송회 철야법회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 서울법당은 29일 오후 11시 30분부터 (금강경) 7독과 참회정진으로 공부를 점검하고 새로운 발심을 다지는 철야정진법회를 병행한다. (02)742-0172

사회불교실천회 창립추진

(가칭)사회불교실천회(회장 진진옥)는 '인간방생 자연방생'이란 구호아래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공명을 전할 창립위원을 모집한다. (051)868-0957

진주유적답사회 내달창립

진주불교회관(운영위원장 박갑진)은 지역 불교유적을 답사하고 가꾸어 나갈 (가칭)진주불교유적답사회 회원을 이달말까지 모집한다. 선착순 40명 내외를 모집, 내달중 창립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0591)747-0108

대구정법회 개금불사

대구개인택시정법회(회장 김주분·지도법사 설조스님)는 16일 오전 자체법당인 해림원에서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금불사 회향봉불식을 거행했다.

전공벽 넘어 불법탐구 '동행'

탐방 부경대 불교교수회

지난 3일 부경대학교 대학극장에서는 능가스님(내원암 회주)을 초청한 법회가 열렸다. 이는 부산공업대학교와 수산대학교의 통합으로 탄생한 부경대학교의 1주년 행사와 부경대학교불교교수회 창립 1주년을 아울러 기념하는 자리였다. 이날 능가스님의 '21세기와 불교사상'이라는 주제 강연은 논리적이면서도 해박한

부경대불교교수회는 창립과 함께 10월 시민 교수 학생이 함께 하는 서암스님 초청대법회를 열고 합창출발을 한데 이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수련을 위한 사찰순례법회를 두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해오고 있다. 바쁜 연구활동중 어렵게 틈을 내어 마련하는 법회로 가깝게는 법어사 금강암에서 지리산 칠불사, 하동 쌍

물질과 정신 조화시키는 교육 지향

지난해 창립...세미나·답사등 행사

지식으로 불교사상을 전해 학생과 불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의 행사를 주관했던 부경대불교교수회(회장 하만경·기독교대학과)는 부산공업대에서 활동하던 불교교수회를 모체로 부경대학교로 통합된 96년 8월, 50여 회원으로 창립되었다.

게사, 곤약 다송사, 해남 대문사, 무위사, 백련사 등지를 순례하다 108배 참회기도, 분암토론, 법문 등을 통해 수련과 정진에 노력해 오고 있다. 회원들은 이러한 법회를 통해 다져진 신심을 모체로 부경대학에 실천하고 전달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창립 한해를 맞은 결집마 단계의



모임이지만 앞으로 매월 정기법회, 지정사찰과 법사스님 위촉, 개인별 연구테마에 따른 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성지순례, 유적답사, 수계법회 등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하만경 회장은 "자신이 이룬 학문적인 지식에 대한 아집을 버리고 불법에 귀의한다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활동을 계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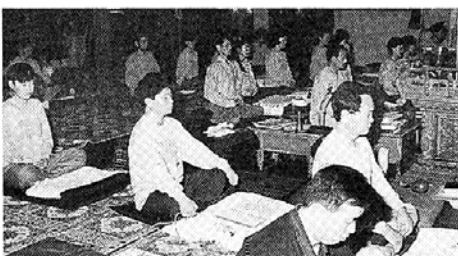
부경대불교교수회 주관으로 지난 3일 부경대학교 대학극장에서 열린 능가스님 초청법회.

부산=천미희 기자

"1만배 참회에 쌓인업장 저만큼"

하불동 70명 3천배·7명 1만배 회향

8~9일 무박2일간 서울 상도동 보문사에서 열린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김주서, 이하 하불동) 주최 3천~1만배 참회기도법회 현장. 3천배도 힘든데 1만배에 도전한 하불동 회원 10명(7명 완배) 등 60명의 회원과 20명의 일반 불자들은 억겁의 전생을 거치며 알게 모르게 지어 온 죄업을 참회하고 업장이 소멸될 것을 발원했다.



8일 밤 9시 진행된 참회가 무엇인지 마음을 정리하는 '좌선입정'을 시작으로 참회기도에 들어간 70명의 동참자들은 다음날 아침 한 사람의 나오자 없이 3천배를 마쳤으며, 선방에서 따로 용맹정진한 10명의 불자들도 대부분 1만배 참회기도를 무사회향했다.

하불동의 터줏대감들이 대부분 참여한 이번 법회에서는 장애불자인 진선화(40) 홍경자(33)씨도 3천배를 돌파해 주변의 놀라움을 샀다. 진선화씨는 "팔이 아파 2천5백번째 절을 할 때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내 마음의 때를 조복받고 싶어 끝까지 정진했다"면서 "그렇게 아프던 몸이 자고 나니 상쾌해 너무 신기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

법륜사 수향처소 입주자 모집

삼보귀의 하소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에 연로하신 노인들의 외롭고 쓸쓸한 노후생활 저희 법륜사 안식처에 모시고자 합니다.

- 저희 법륜사 안식처는?
1. 아담한 한옥과 편리한 현대식이 어울린 최고의 시설과,
2. 자체 농사로서 무공해 음식을 제공하며,
3. 육방 의료, 운동시설, 휴게실등을 갖추어,
4. 가족과 친지분들이 오셔서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5. 지치고 얽히고 설킨 한과 고를 소멸할 수 있는 기도과 좌선 예불을 올리며,
6. 노인 개개인의 건강과 취미에 따라 비구니 스님께서 정성껏 모시며,
7. 특히 치매노인을 10명까지 입주시킵니다.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e.g., 남녀총인원, 방1실~1명) and Details (e.g., 65명, 평생 수향하실 분 - 3천만원). Includes a note about special cases for dementia patients.

평생 수향 분담금 안내
* 빠른 시일내에 접수마감되오니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접수마감 : 12월말까지
주지: 윤 봉 · 총무스님: 자 혜 · 신도회장: 이 경 자 합장

제주거사님 '불심심기' 활발

이웃돕기 일일식당·성도절 백일장 열어

16일 제주지역 거사리회 두 곳이 동시에 의미있는 행사를 벌여 눈길을 모았다. 제석사거사리회(회장 고천우)의 '불우이웃 돕기 일일식당'과 서귀포정토거사리회(회장 송두금)의 '백일장 및 부처님 그리기 대회'가 바로 그것. 제석사거사리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박광택회원이 제공한 신서원가든에서 제주시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40여명을 초청, '자비의 만남 이웃과 함께'를 주제로 일일식당을 열었다. 제석사 주지 종호스님과 지역 기관장, 불자 등 5백여명의 참석자들은 이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보시했으며, 거사리회는 우리 매미로 만든 국수와 빻떡(제주식 만두), 식혜, 말갈 등을 대접했다. 정토거사리회는 오전 10시 서귀포시 법사사 도랑에서 지역 6개 초등학교와 4개 유치원의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도제일기념 백일장 및 부처님그리기 대회를 가졌다. 매년 성도제일을 앞두고 어린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친근하게 가르쳐 미래의 훌륭한 부처로 키우기 위해 열린 이 행사는 이번이 세번째.

동서화합 메아리 '하나로'

부산·광주불자산악회 결연

9일, 광주와 부산의 지역감정을 일소(一消)하는 화합의 장이 열렸다. 붉은 단풍의 함성이 외와 들려오던 금정산 자락의 법어사에서 부산불교산악회(회장 이순득)와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이재삼)가 자매결연을 가졌던 것. 이날 자매결연은 세간에 번져있는 부산 광주간의 지역감정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너와 내가 따로 없고 동서가 따로 없는 자명한 진리를 앞장서 실천한 마당이었다. 중앙승가대 교수인 홍선스님을 법사로 부산 광주의 불교산악회 회원 5백여명이 동참했다. 이순득 부산불교산악회장은 "이 행사는 하나의 상징일뿐"이라고 전제하며 "푸르른 산에 들면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며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지역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삼 광주불교산악회 회장은 "27개 산악회가 있지만 유일하게 부산과 광주만이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오늘의 이 자리가 전국의 불자가 하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불교산악회는 이번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분기별로 산자락의 산사를 찾아 법회와 합동산행을 가질 예정이며 부산 광주의 불우시설을 함께 찾아 불법을 전하며 지역간의 벽을 허물어 나갈 것이다.



한·중 황해문화대탐사 보고회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10일 90주년 기념문화관에서 지난 7월 황해를 마친 한·중 합동 황해문화대탐사 및 북극항해 탐사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송석구(동국대총장) 보광스님(1백주년기념사업본부장) 김준엽(대우사회과학원 이사장) 전해중(서강대 명예교수) 김문경(숭실대 명예교수) 정창복(해양경찰청장 비서실장) 이동범(해동화재 이사) 채바다(탐험가)씨 등이 참석했다.



불연 이기영박사 1주기 추모

불연(不然) 이기영박사 1주기 추모법회가 8일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월주스님은 "한국 불교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이기영박사의 수행을 귀감으로 삼아 여법한 세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날 이기영박사의 삶과 사색이 깃든 <내 곁을 걷는 마음에 있나니>(한국불교연구원) 출판기념회도 열렸다.



삼보사, 도리산 육지장사 기공

은평구 삼보사(주지 지원)는 8일 경기도 양주군 도리산에서 '육지장사 창건 기공 및 출세지장보살 집안식'을 병행했다. 이 자리에는 무진장(前 조계종 포교원장) 법장(수덕사 주지) 해광(법주사 주지)스님을 비롯 권익원(국회장각동우회장) 박찬주(국민회의)의원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2002년 원공 예정인 육지장사는 5천여평의 부지에 총32억 원을 들여 대원지장 본당, 설법전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불교 서예인협회 창립법회

서선일여(書禪一如)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에 맑고 향기로운 문화를 발현시켜갈 불교서예인협회 창립법회가 1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거행됐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해암(조계종 원로회의장) 설정(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성타(조계종 포교원장) 법타(은혜사 주지) 스님과 여초 김운현, 구담 여원구, 정하건씨 등 서예인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2. 학교연혁
3. 특 전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5. 원서교부및문의처
Includes a table of subjects and enrollment details for Samhwa Buddhist University.